

# 서민들은 달린다 '오픈런' 세상

## 예·적금 이자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금융상품 조기 마감에 발길 돌리기도...유통가, 미끼상품 유혹 '눈살'

# 광주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한 은행에서 출시한 연이율 5%대 예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시간 전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섰다. '오픈런'을 한 A씨는 이날 만기가 2개월 남은 10년 적금까지 해지하고 현장에서 기다렸지만, 가입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긴 줄까지 기다렸지만 1시간 30분만에 상품이 마감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이율이 높다는 말에 우대금리도 포기하고 적금을 깬다" 사람이 몰려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다"면서 "적은 상품을 준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한 미끼상품에 당한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물가·고금리 일상에서 '오픈런' 열풍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열풍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려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픈런은 한정된 상품 등을 구하기 위해 개점 시간보다 앞서 매장으로 가는 행위를 뜻한다. 높은 물가에 조금이라도 싼 물건, 금리를 더 주는 곳을 찾아 문을 열기도 전에 달려가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오픈런을 이용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이번 달 초 광주의 한 마트에서 사과주스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에 시민 수십명이 오픈런을 하기도 했다. 유기농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이 마트는 사과주스 1박스를 정가에서 70% 할인해 판매했다.

광주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는 사과주스를 구매하기 위해 매장 운영 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는 글이 이어졌다. 사과주스를 저렴하게 구매해 기분이 좋다는 글과 품질이러 구매하지 못해 아쉽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회원은 광주 뿐 아니라 전남에 있는 매장까지 방문해 사과주스 수신탕스를 구매할 인증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부모와 함께 광주 지역의 매장을 돌면서 사과주스 수신탕스를 손쉽게 구매했다는 인증글도 있었다. 금융업계도 가세해 '예·적금' 오픈런이 인기다. 하지만 예·적금 특판 한정판 예금은 전국적으로 인원이 한정에 있고 대부분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런을 해도 가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상품의 인기는 명품 한정판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끼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구매 조건이 없는지, 유통기한이 임박하지 않았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물가에 조금이라도 더 싼 제품을 찾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미끼상품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끼상품은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내걸고 매장으로 손님을 유인한 뒤, 다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광주시 동구에 있는 한 화장품 업체는 8일부터 에센스 등 일부 상품을 최대 80%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품들은 오전부터 품절돼 이를 찾는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태다. 80% 할인하는 에센스 제품은 재고가 6개 뿐이라 진작 품절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빈 손으로 갈 수 없어 자연스럽게 다른 상품을 사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 화장품 매장에서는 지난 9월 초 100원 특가 할인을 진행했다.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매장 점원은 "지난 9월 할인 기간 동안 매장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열기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00원 특가 상품은 다른 제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만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흥은실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을 초과하거나, 집에서 소비할 수 없을만큼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일 수 있다"며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

## 아이 안고 새벽 6시 아동병원으로

저출산에 동네 소아과 줄어...광주 10여 곳 진료 전부터 '복적'

광주에서 아이들의 진료를 위해 학부모들이 병원 문을 열기 전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새벽 6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아동 병원은 대기표가 이미 10번까지 뺐혔다. 이 병원의 진료시작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당일에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새벽부터 부모들의 발길이 몰린 것이다. 부모들은 아픈 아이의 진료를 빨리 보기 위해 새벽에 눈을 비비고 나와 대기표만 뽑고 귀가했다가 개원 시간에 맞춰 다시 병원을 찾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새벽 손자 이마에서 열이 나자 고영임(여·63·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도 아침 일찍부터

집 근처 아동병원을 찾았다. 고씨는 아들 내외가 일찍 출근해 평소 자신이 손자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등원 전에 진료를 보기 위해 오전 7시 20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의 손에 주어진 번호표는 13번이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아동병원에도 대기열이 길게 늘어섰다. 오전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한 병원에는 30분만에 이미 60명의 환자가 접수됐다. 이처럼 아동병원에서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원인은 동네 소아과가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동네 소아과는 줄고 권역별 중대형 아동병원이 생기면서 이곳으로 환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는 10여개의 중대형 아동병원이 환자들을 싸잡아하고 있다. 부모들은 '주말 진료 가능한 점', '전문 의 한 명에게 꾸준히 진료 받고 싶어서', 'SNS나 맘카페 등에서 유명한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싶어서' 등을 이유로 중대형 아동병원을 찾고 있다. 하지만 새벽부터 대기를 해야 당일 오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차를 내고 진료시작 시간인 오전 9시 병원을 찾은 김일호(3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진료받을 수 있다는 말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아침부터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출근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진료를 보란 말이냐"며 하소연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



아키바 토르(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국립5·18민주묘지 김경철 열사 묘역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 주한 이스라엘 대사 5·18민주묘지 참배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광주 5·18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오일 영령들을 참배했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지난 7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 및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후 토르 대사는 김병태 국립5·18민주묘지 소장 의 안내를 받아 김경철 열사와 윤상원 열사 묘역, 행

방불명자 묘역과 추모관을 차례로 둘러봤다. 일정상 5·18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는 못했으나 대신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CD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르 대사는 방명록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스러운 장소에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방문했다"는 문구를 적었다. /유연재 기자 yiyou@

##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

가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아동학대를 받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우선돼야 했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대리인을 맡지 않으

려해 친권 상실 청구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할 경우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던 점을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도 도입했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기 이상(통상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이내 미지급'으로 대폭 줄였다. 한 달만 양육비를 안 줘도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 광주 북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2년 연속 선정

국공립 어린이집 6곳 23억 지원

광주시 북구의 노후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 단장에 나선다.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시비 19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이번 공모사업에 국제영재어린이집(삼각

동), 일곡소명어린이집(일곡동), 명성어린이집(동림동), 운암어린이집(운암동) 에버빌어린이집(본촌동), 아이큰숲어린이집(신용동) 등 북구내 국공립어린이집 6곳이 선정됐다. 북구는 내년부터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23억여 원을 투입해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조명 등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